

PIANIST
DOOMIN KIM
DEBUT
RECITA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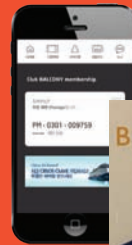
15만 공연애호가들의 선택 Club BALCONY가 제안하는 품격있는 문화예술의 경험과 서비스

클럽발코니와 함께 감동의 문화생활을 설계해보세요!



JOIN Club BALCONY

15만 공연애호가들의 선택 (예매고수의 노하우)
크레디아 기획공연 5~30% 상시 할인
나만의 비서! 티켓 오픈 무료 SMS 서비스
문화애호가의 필수품, Club BALCONY 매거진 무료우송
모바일 회원카드 확인 후 크레디아 기획공연 프로그램북 증정
크레디아 기획공연 단독 선예매 및 예매, 취소, 티켓 배송 수수료 면제
만료 후 재가입 시 할인 혜택



JOIN CIELOS Club

CIELOS 회원만을 위한 프라이빗 음악회, 전시회, лек처 문화행사 무료초대 (동반1인 포함)
CREDIA의 엄선된 공연 패키지 30~50% 할인제공 및 좌석우위
Club BALCONY 평생회원 자격

Upcoming Programs

클럽발코니 렉처 프로그램

클럽발코니 x 오드포트 친절한 디토씨의 음악여행

- ↳ 미샤 마이스키 & 무지크 콜레기움 빈터투어 | 10/17
- ↳ 안네 소피 무터 | 11/21
- ↳ 사라 장 | 12/19

CIELOS TOUR

빈 필하모닉과 함께 떠나는 유럽 크루즈 10박 12일 | 2020/9/19 ~ 9/29
* 9월 중 판매 오픈!

**Pianist Doomin Kim
Debut Recital**

**피아니스트 김두민
데뷔 리사이틀**

2019년 9월 20일 (금) 오후 8시
예술의전당 IBK 챔버홀

8PM Friday, September 20, 2019
IBK Chamber Hall, Seoul Arts Center

피아니스트, 김두민
Pianist, Doomin KIM

주최 **CRE DIA MUSIC & ARTISTS**

후원 **KOREAN AIR 5G**  **WARNER CLASSICS**

SBS 영재발굴단이 소개하고

워너클래식이 선택한

피아니스트 김두민

Doomin Kim



인터내셔널 데뷔 앨범

〈멘델스존 피아노 작품집〉

멘델스존의 아름다운 멜로디가
김두민의 피아노를 타고 옵니다.

멘델스존

〈론도 카프리치오소〉,
〈어린이를 위한 소품집〉,
〈환상곡〉 등 수록

베토벤 1770-1827
Germany
L.v.Beethoven

안단테 파보리 F장조 WoO.57 8'
'Andante Favori' in F Major WoO.57

피아노 소나타 제1번 f단조 Op.2 15'
Sonata No.1 in f minor Op.2

I. Allegro 빠르게
II. Adagio 매우 느리게
III. Menuetto, Allegretto 미뉴에토, 조금빠르게
IV. Prestissimo 가능한 한 가장 빠르게

피아노 소나타 제12번 A플랫장조 Op.26 17'
Sonata No.12 in A-flat Major Op.26

I. Andante Con Variazioni 느리게
II. Scherzo, Allegro Molto 스케르초, 매우 빠르게
III. Marcia Funebre Sulla Morte D'un Eroe 영웅의 죽음에 대한 분노
IV. Allegro 빠르게

I N T E R M I S S I O N

멘델스존 1809-1847
Germany
F. Mendelssohn

6개의 어린이를 위한 소품집, Op.72 9'
6 Kinderstücke Op.72

I. Allegro non troppo 빠르지만 지나치지 아니하게
II. Andante sostenuto 느리고 여유롭게
III. Allegretto 조금 빠르게
IV. Andante con moto 안단테보다 조금 빠르게, 그러나 활기 있게
V. Allegro assai 매우 빠르게
VI. Vivace 아주 빠르게

론도 카프리치오소 E장조 Op.14 7'
Rondo Capriccioso in E Major Op.14

변주곡 E플랫장조 Op.82 8'
Variations in E-flat Major Op.82

환상곡 F샵단조 Op.28 14'
Fantasy in F-sharp minor Op.28

I. Con moto agitato - Andante 생생하고 빠르게 - 느리게
II. Allegro con moto 빠르고 경쾌하게
III. Presto 매우 빠르게

본 공연의 프로그램은 연주자의 사정에 따라 사전 공지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음악회가 시작되기 전에 휴대폰을 꺼 주시기 바랍니다.
음악회 중에는 일체의 촬영 및 녹음을 삼가하시기 바랍니다.

This Program is subject to change without any notice.
Before the concert begins, please switch off your mobile phones and electric devices.
Recording and photographing are not allowed during the concert.

루트비히 판 베토벤
안단테 파보리 F장조
WoO.57

Ludwig van Beethoven
'Andante Favori' in F Major
WoO.57

베토벤은 위대한 피아노 소나타와 변주곡, 소품집 등을 남겼지만, 이에 비하면 단일한 피아노 소품의 존재감은 매우 미미하다. 그저 <엘리제를 위하여>(1810)만이 독야청청 빛날 뿐이다. 하지만 오늘 연주회에 참석하신 분들은 또 하나의 소품을 기억하게 될 것이다. 바로 <안단테 파보리>(1803)이다. 이 곡은 본래 <피아노 소나타 21번 '발트슈타인'>(1803-04)의 2악장으로 작곡되었다. 이후 벌어진 일은 베토벤의 제자인 페르디난트 리스(Ferdinand Ries)가 그의 친구인 프란츠 게르하르트 베겔러(Franz Gerhard Wegeler)에게 알려주었으며, 그 내용은 “루트비히 판 베토벤에 대한 전기적 비망록”에 기록되어 출판되었다. “베토벤의 후원자였던 발트슈타인 백작에게 헌정된 소나타에는 본래 장대한 안단테가 있었다. 베토벤의 한 친구는 소나타가 너무 길다고 말했지만, 베토벤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나의 선생님은 심사숙고한 후 곧바로 수정했다. 그는 이 곡만을 따로 <안단테 F장조>로 출판했다. 그리고 후에 론도의 흥미로운 서주를 작곡해 넣었는데, 이것이 지금의 소나타이다.”

당시는 <피아노 협주곡 3번>(1803)과 <교향곡 3번 '영웅'>(1803)을 작곡한 직후로서 베토벤의 기량이 급상승했던 시기였기에, 10분의 길이 안에 흥미롭고 놀라운 변주들에서 많은 음악적 상상력과 만나게 된다. 그리고 이 곡을 소나타보다 1년 앞선 1805년 9월에 출판하고, 1807년에는 새로운 에디션을 만들면서 이름에 '사랑스러운'이라는 의미를 더하여 '안단테 파보리'로 적은 것을 보면, 베토벤은 이 곡에 대해 남다른 애정을 가졌던 것 같다. 베토벤의 제자인 칼 체르니(Carl Czerny)도 베토벤이 이 곡을 즐겨 연주했다고 전한다.

루트비히 판 베토벤
피아노 소나타 제1번 f단조
Op.2

Ludwig van Beethoven
Sonata No.1 in f minor
Op.2

1792년, 베토벤은 드디어 독일 서쪽 쾰트머리에 있는 소도시 본에서 벗어나 음악의 중심 빈으로 이주하여 하이든의 레슨을 받았다. 베토벤은 하이든으로부터는 배울 것이 없다고 생각했지만, 하이든은 귀족 후원자들에게 소개하는 등 베토벤에게 매우 실질적인 도움을 주었다. 리히노프스키 공(Prince Carl von Lichnowsky)도 그중 한 사람으로, 1796년 그의 금요 아침음악회에서 베토벤은 자신의 소나타들을 연주했다. '빈과 프라하의 음악 연감'에는 이 음악회에 대해 “우리는 그의 여러 아름다운 소나타들을 들었다”라고 기록되어있다. 이 작품은 하이든에게 헌정된 '세 개의 피아노 소나타, Op. 2'(1793-5)였을 것이며, 하이든도 이 음악회에 참석했을 것이다. 하이든은 또 이 소나타들을 어린 베토벤을 후원했던 쾰른의 대주교이자 선제후인 막시밀리안 프리드리히(Maximilian Friedrich)에게 보내면서, 빈에서 자신의 제자가 이렇게 진전을 보이고 있으니 후하게 용돈을 달라고 요청하는 등, 제자

의 안정된 삶을 위해 힘썼다.

베토벤은 본 시절에도 네 곡의 소나타를 작곡하여 이중 첫 세 곡(WoO 47/1~3)을 쾰른 대주교에게 헌정했지만, 이 세 곡에 ‘Op. 2’를 붙임으로써 이전 것을 습작으로 치부하고 새로운 시작을 공식화했다. 오늘은 이중에서도 의미심장한 첫 곡이 연주된다. 1악장은 전형적인 소나타 형식으로, 선배 작곡가들의 영향이 감지된다. 시작과 함께 불꽃 튀듯 크게 도약하는 제1주제는 18세기 후반에 유행했던 전형적인 ‘만하임 로켓’ 유형으로, 모차르트도 자주 사용했다. 그리고 이와 대조적으로 유연하고 차분한 제2주제가 등장한다. 제1주제의 변형된 선율로 발전부가 시작되고, 재현부에서 본래의 주제가 재현된다. 2악장은 후기 모차르트를 연상시키는 잔잔하고 우아한 노래 선율을 들려준다. 여기에 더해져 있는 정교한 장식이 선율을 더욱 빛나게 한다. 3악장은 선배 작곡가들의 전통을 따라 ‘미뉴엣’으로 작곡되었다. 율동적으로 움직이는 처음과 끝 사이에, 이와 대조적으로 유연하게 진행되는 트리오(중간 부분)로 구성되어있다. 4악장은 격정적으로 매우 빠른 속도로 몰아치며 하이든의 질풍노도를 연상시킨다. 서정적인 중간 부분에서조차도 끊임없이 요동하는 왼손 반주로 긴장을 놓지 않는다.

루트비히 판 베토벤

피아노 소나타 제12번 A플랫장조

Op.26

Ludwig van Beethoven

Sonata No.12 in A-flat Major

Op.26

베토벤은 리히노프스키 공의 후원을 받아 삶이 완전히 바뀌었다. 불편하고 좁은 다락방이 넓은 거실이 있는 방으로 바뀌었고, 베토벤의 시종까지 생겼다. 경제적인 지원은 물론이었다. 그는 정확히 오후 4시에 시작되는 공의 저녁 식사에 초대를 받았고, 공에게 자신의 피아노 작품을 지도했다. 둘은 종종 다툼이 있었지만, 관계는 변함없이 유지되었다. 베토벤은 이러한 공을 “나의 가장 따뜻한 친구”라고 칭하기도 했다. 이러한 호의에 그는 <피아노 소나타 12번>(1801)을 리히노프스키 공에게 헌정했으며, 1802년 3월 카피(Cappi)에 의해 출판되었다.

<피아노 소나타 12번>은 베토벤이 처음으로 고전 형식에서 벗어나 새로운 탐색을 보여준 작품으로, 19세기의 시작과 함께 새로운 시대의 시작을 알린 뜻깊은 작품이다. 1악장부터 빠른 템포의 소나타 형식이 아닌, 느린 템포로 주제를 제시하고 다섯 개의 변주곡이 등장하는 변주곡 형식이다. 이것은 역시 느린 주제와 변주곡으로 구성된 모차르트의 <피아노 소나타 11번, K. 331>(1783) 중 1악장을 모델로 했을 것이다. 1변주는 주제에 장식이 더해지고, 2변주는 오른손의 단순화 화음과 왼손의 주제가 빠르게 엇갈리게 연주하며, 3변주는 조표로 일곱 개의 플랫을 사용하고, 4변주는 베이스 라인을 스타카토 스타일로 연주하면서 서정적인 분위기로 긴장을 푼다. 마지막 5변주는 물결이 넘실대는 듯한 장식이 돋보인다.

2악장은 느린 악장이 아닌 스케르초이다. 다섯 음으로 이루어진 긴 몸통에 세 음으로 이루어진 꼬리가 붙어있는 첫 주제가 빠르게 연주되고, 유연한 트리오(중간 부분)는 이와 대조된다. 그리고 첫 주제로 돌아와 마무리한다.

3악장은 느린 악장으로, ‘한 영웅의 죽음에 붙인 장송 행진곡’이라는 부제가 적혀있다. 이 악장의 부점 리듬을 가진 주제는 당시 공화주의자들 사이에서 유명한 선율로, <교향곡 3번 ‘영웅’>(1803)의 2악장 ‘장송 행진곡’에서도 유사하게 등장한다. (소나타에서는 나폴레옹을 염두에 둔 것은 아닐 것이다.) 자신에게 호사를 누리게 해 준 귀족에게 헌정하면서 공화주의자들의 노래를 삼입한 것에서 베토벤의 정치적 이중성을 엿볼 수 있다. 이 악장은 전체적으로 장엄한 분위기이며, 독특한 조성 변화와 작은북 소리, 축포 등 영웅담을 전하는 듯한 다양한 음악적 장면을 들 수 있다. 이 악장은 1827년 베토벤의 장례식에서 연주되었다.

4악장 피날레는 론도 형식으로, 이 곡에서 유일하게 전통 양식에 맞춰져 있다. (‘론도’는 율형을 의미하는 말로, 음악에서는 세 개 정도의 주제가 번갈아 등장하는 형식을 뜻한다.) 이 악장은 베토벤 자신의 실력을 뽐내고자 하는 기교적인 특징을 보이는데, 체르니가 말하길, 이것은 당시 화제를 불러일으켰던 라이벌 요한 밥티스트 크라머(Johann Baptist Cramer)의 <소나타 A플랫장조, Op. 23 No. 1>(1799)와 관련이 있다. 이 곡은 당시 “놀라서 번쩍 깰” 작품이라는 평가를 받았는데, 베토벤 또한 같은 조성으로 작곡한 것은 우연이 아닐 것이다.

펠릭스 멘델스존

6개의 어린이를 위한 소품집

Op.72

Felix Mendelssohn-Bartholdy

6 Kinderstücke

Op.72

멘델스존은 런던을 방문할 때면 베네케(Benecke) 가족의 집에서 머물곤 했다. 이들은 아내의 친척이었으며, 그의 딸인 마리아가 빅터 베네케와 결혼하는 등 두 집안의 관계는 매우 돈독했다. 1942년에 방문했을 때에 멘델스존은 베네케의 아이들을 위해 <어린이를 위한 6개의 소품>을 작곡해주었다. 이 곡들은 어렵지 않은 차분한 소품들로 구성되어 있다. 슈만의 성격소품집 <어린이 정경>이나 드뷔시의 <어린이 차지>와 같이 구체적인 부제가 없어 각 곡들이 무엇을 표현하는지는 알 수 없지만, 천진난만한 선율과 운동성 있는 리듬은 가볍게 뛰어노는 어린 아이들의 모습과 닮아있다. 이 곡을 들으며 여러분의 어린 시절을 떠올려보길 바란다.

펠릭스 멘델스존

론도 카프리치오소 E장조

Op.14

Felix Mendelssohn-Bartholdy

Rondo Capriccioso in E Major

Op.14

멘델스존은 불과 13세였던 1822년에 ‘Op. 1’을 내놓았으며, 그 이전에도 다수의 현을 위한 교향곡과 협주곡, 소나타를 완성했던, 모차르트에 버금가는 음악 신동이었다. 당시의 초기작들에는 10대의 젊은

열정과 섬세한 영감, 낭만의 감성이 가득할 뿐만 아니라, 성인이 된 이후에 그가 구사하는 작곡 기법들이 대부분 등장할 정도로 수준 높은 작곡 실력을 갖추어, 이미 멘델스존만의 목소리가 완성되어 있다.

<론도 카프리치오소>는 언제 작곡되었는지 불분명하지만, 이 역시 10대의 작품에 속한다. 가장 이른 의견은 1824년인데, 그렇다면 <교향곡 1번>(1824)을 비롯한 비슷한 시기의 다른 작품에 비해 독보적으로 높은 수준을 지닌 작품이 된다. 최근에는 이보다 늦은 1828년을 초판의 완성 시기로 보는 견해가 있으며, 2년 후 뮌헨 출신의 피아니스트 델피네 폰 샤우로트(Delphine von Schauroth)에게 선물하기 위해 느린 도입부를 보강하여 6월 13일에 최종판을 완성하고 그 해에 출판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곡은 4/4박자 E장조의 ‘안단테’ 부분과, 6/8박자 e단조의 ‘프레스토’ 부분으로 구성되어있다. 이렇게 느린 도입부와 빠른 본문의 연결과 장조에서 단조로의 진행은 이후 멘델스존의 작품들에서 종종 나타난다는 점에서, 1830년의 시점에서 보더라도 여전히 선두적인 위치에 있다. ‘안단테’ 부분에서는 짧은 전주 후, 하강하는 세 음 G#-E-B이 등장하면서 노래와 같은 선율이 펼쳐진다. 비슷한 시기에 아름다운 선율로 가득한 ‘무언가 1권’(1829-30)을 작곡하고 있었는데, 이 곡에도 이와 동일한 낭만적인 감수성이 가득하다.

‘프레스토’ 부분은 스타카토로 툭툭 뛰는 하강 음형으로 시작한다. 이 주제는 훗날에 완성된 연극음악 <한여름 밤의 꿈> 중 ‘스케르초’(1842)를 연상시킨다. 긴장감이 가득한 첫 주제 후, 노래 선율이 장조로 등장하면서 분위기를 바꾼다. 그리고 어두운 하강 음형과 대조되는 밝은 상승 음형과 빠른 아르페지오 등이 론도 형식으로 재등장하고 교차되면서 복잡하게 전개된다.

펠릭스 멘델스존
변주곡 E플랫장조
Op.82

Felix Mendelssohn-Bartholdy
Variations in E-flat Major
Op.82

1841년, 멘델스존은 라이프치히에서의 성공적인 활동을 뒤로하고 어린 시절을 보냈던 베를린으로 돌아왔다. 새로 부임한 왕인 프리드리히 빌헬름 4세가 베를린의 예술을 재건하려는 계획에 참여해 줄 것을 멘델스존에게 요청했기 때문이었다. 멘델스존의 임무는 음악원 설립과 교회음악의 부흥 등이었다. 처음에는 썩 내키지 않았지만, 베를린은 20여년을 살았던 사실상 고향이었고, 그의 어머니 레아와 누나 파니, 동생 파울 등 가족들이 아직 그곳에 살고 있다는 사실이 이주를 결심하는 데 영향을 끼쳤다. 하지만 베를린은 곧 그에게 실망을 안겼다. 음악원 설립을 위한 자금이 충분치 못했고, 그가 제안한 음악회가 열리지 못했으며, 만족할 만한 자리도 주지 않았다. 결국 멘델스존은 이듬해에 라이프치히로 돌아가 버렸다.

멘델스존은 베를린에 머물렀던 1841년 여름에 세 곡의 변주곡을 작곡했다. <변주곡 E플랫장조>는 그 중 하나로, ‘표현적으로’(espressivo)라는 지시어가 있는 찬송가풍의 주제가 제시된 후 다섯 개의 변주곡이 이어진다. 1변주는 처음에서 단서를 제시하면 고음이 길게 응답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며, 2변

주는 저음에서 웅얼거리듯 빠르게 움직이는 삼연음 리듬으로 반주하여 긴장감을 돋운다. 3번주는 고음과 저음의 화음이 교대로 빠르게 응답하고, 4번주는 보통빠르기로 안정된 상황에서 음형이 반복되는 베이스 반주와 파편화된 선율이 교대로 진행하며, 5번주는 주선율과 웅얼거리듯 빠르게 움직이는 장식음, 저음 반주가 병치되어 있다. 마지막 코다는 고음으로 오르내리는 화려한 장식음으로 대단원에 도달한 후, 찬송가풍의 첫 주제를 재현하며 차분히 곡을 마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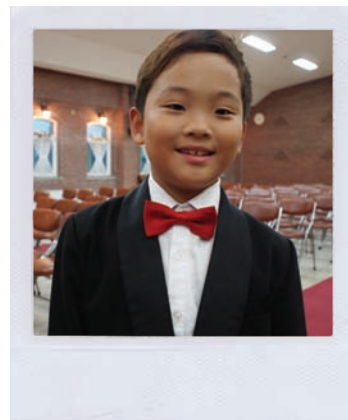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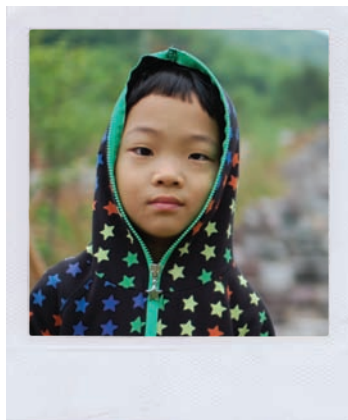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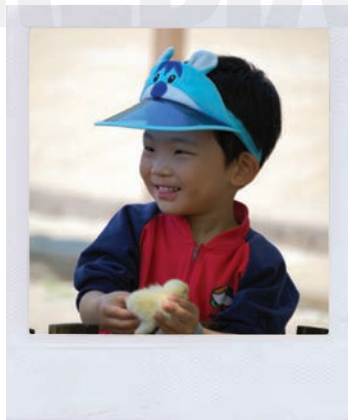
펠릭스 멘델스존
환상곡 F샵단조
Op.28

Felix Mendelssohn-Bartholdy
Fantasy in F-sharp minor
Op.28

<스코틀랜드 소나타>라고도 불리는 멘델스존의 <환상곡 F샵단조>는 그가 스코틀랜드를 방문하기 1년 전인 1828년에 작곡된 것으로 보이며, 여행에서 돌아온 후 1830년에 바이마르에서 괴테에게 이 곡을 연주해주었다. 그리고 1833년에 수정을 한 후 이그나츠 모셀레스(Ignaz Moscheles)에게 헌정한다는 문구를 추가하여 이듬해에 출판했다. 모셀레스는 1824년 베를린에서 그와 그의 누나인 파니의 스승이었으며, 1829년 런던 방문 때에 도움을 주기도 했다.

1악장은 화려한 아르페지오(펼친 화음)가 오르내리며 시작한다. 그다음 느린 빠르기로 우울한 감성이 배어있는 서정적인 주제가 제시된 후, 여러 빠른 장식 음형이 빠르게 계단처럼 오르내리면서 확대되고, 다시 느린 주제로 돌아온다. 그리고 또다시 화려한 장식이 펼쳐지며 막바지에 이르고, 조용히 마무리한다. 2악장은 스케르초로, 온화한 가장조 주제로 시작한 후 트리오(중간 부분)에서 조성을 라장조로 바꾸고 끊임없이 음들이 움직이며 긴장감을 더한다. 그리고 다시 첫 주제로 돌아와 마친다. 특히 하계도 첫 주제는 빠르고 트리오 주제는 서정적인 일반적인 스케르초와 반대이다. 3악장은 소나타 형식으로, 매우 빠르게 몰아치며 연주된다. 제시부는 두 개의 주제를 중심으로 매우 극적으로 진행하며, 반복하여 두 번 연주한다. 그리고 발전부를 거쳐 마지막 재현부에 이르기까지 긴장의 이완 없이 진행되어 마무리한다.

글 | 송주호(음악 칼럼니스트)





CREDIA

© JEAN-BAPTISTE MILLOT

피아니스트

김두민

Pianist

Doomin Kim

피아니스트 김두민은 2003년 충북 청주에서 태어났다. 초등학교에 입학할 무렵 취미로 시작한 피아노 레슨이 4학년 즈음에는 피아니스트를 염두에 둔 본격적인 레슨으로 전환하게 되었고, 초등학교를 졸업한 후에는 서울 예술의전당 음악영재아카데미를 거쳐, 이탈리아의 ‘이몰라 아카데미’에 입학하여 피아니스트로서의 행보를 시작하게 된다. 이태리 유학 중에 그는 프랑스의 명문 음악원인 에콜 노르말 드 무지크 드 파리(Ecole Normale de Musique de Paris)의 입학 권유를 받게 되었고, 이에 프랑스로 이주하여 현재 파리에 거주하며 수학하고 있다.

2016년 ‘에콜 노르말 드 무지크’ 측은 당시 18세 이상만 입학할 수 있다는 학칙을 깨면서까지 13살 김두민이 6년 전액 장학금 혜택과 함께 이 학교의 최연소 입학생이 되는 새로운 기록을 만들기도 했다. 그는 입학 후 미카엘 블라드코프스키 교수를 사사하며 학부과정을 수석으로 졸업하였고, 현재 대학원 2년 과정에 재학 중이며, 내년 6월 졸업을 앞두고 있다.

김두민은 현재 오른쪽 눈에 의존하여 피아노를 연주해야 하는 핸디캡에도 불구하고, 독특한 연습 방식과 피아노에 대한 열정으로 어려움을 극복하고 세계 예능 교류회 주최 대회장상, 오스트리아 주최 비엔나 국제 콩쿠르 대상, 충북예총 주최 전국 학생음악경연대회 대상 등 여러 대회에서 수상하는 한편, 2018 벨기에 프리마베라 콩쿠르 2위, 2018 프랑스 마이엔 국제 콩쿠르 결선 진출 등 뛰어난 성과를 거두기도 하였다.

김두민은 이례적으로 어린 나이에 메이저 음반사인 워너클래식과 계약하여, 2019년 8월 그의 데뷔 앨범 <멘델스존 피아노 작품집>이 전세계에 동시 발매되었는데, 이로서 김두민은 메이저음반사를 통해 데뷔 앨범을 발매한 ‘역대 최연소 한국인 피아니스트’가 되었다. 또한 그는 2020년 베토벤 탄생 250주년을 맞아 워너클래식이 특별 기획한 80 CD 분량의 <베토벤 작품 전곡 레코딩> 프로젝트에도 참여하여 베토벤의 잘 알려지지 않은 희귀한 피아노 솔로 작품들을 녹음하였고, 네 손을 위한 피아노 곡들을 피아니스트 ‘기욤 뱅상’과 함께 녹음하기도 했다. 그의 연주가 포함된 베토벤 작품 전집은 2020년 가을 워너클래식을 통해 출시될 예정이다.

나만의 에이플랫 메이저를 찾아서, 베토벤처럼!

“베토벤에서 에이플랫 메이저(A-flat Major)는 특별한 조성이에요. ‘운명 교향곡’(교향곡 제5번 c단조 Op.67)이 그렇고 ‘비창 소나타’(Piano Sonata No.8 c minor ‘Pathetique’) 2악장도 그렇죠.”

2016년 11월 SBS ‘영재발굴단’에 소개됐던 13살 소년 김두민이 어엿한 피아니스트로 돌아왔다. 피아니스트 김두민은 스스로 “나를 닮았다”고 표현하는 루트비히 판 베토벤(Ludwig van Beethoven)의 에이플랫 메이저에 대해 특별한 애정을 표했다.

“그의 음악에서 에이플랫 메이저가 특별한 이유는 베토벤만 알겠죠.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 조성이 나올 때의 베토벤은 자신을 돌아보는 느낌이에요. 자아성찰 같은 느낌이었을까요. 그 성찰에서 나오는 고통과 고뇌가 담긴 그런 조성이죠. 에이플랫 메이저가 있으면 저도 되게 집중하게 돼요. 감정적이고 개인적이고...자신의 내면에 집중하는 시간의 느낌이죠.”

그리곤 “에이플랫 메이저를 연주할 때는 저 역시 제 안에 있는 뭔가를 찾으려고 노력한다”며 “베토벤이 에이플랫 메이저를 작곡했을 때 어떤 생각을 했을까를 상상하면서”라고 덧붙였다. 그런 그에게 “김두민만의 에이플랫 메이저는 무엇인가”라고 물었다.

“그렇게 상상한 생각은 제가 하는 하잖아요. 거기에 저만의 에이플랫 메이저가 묻어 나오지 않을까요?”

2년 전 녹음한 ‘멘델스존 피아노 작품집’

“완전 바뀌었을 거예요. 진지하게 제 음악을 구축해 나가기 시작했거든요. 녹음 당시에는 배우는 학생이었고 지금은 연주자가 되고 있는 단계라고 생각해요.”

예콜 노르말에 입학해 지난해 5학년을 마치며 수석졸업했고 현재는 대학원에 해당하는 과정 중에 있는 김두민은 2년 전 녹음해 이제 출시된 첫 데뷔앨범 ‘멘델스존 피아노 작품집’에 대해 “만14세, 당시에 할 수 있는 수작”이라고 자평했다.

“지금의 제 해석과는 좀 차이가 있지만 당시 할 수 있는 최선을 넘어선 녹음이라고 생각해요. 나이마다 연주의 장점은 다르다고 생각해요. 그때는 부족한 걸 고치려고 하기 보다 잘 할 수 있는 데 집중했죠. 연주 스킬 보다는 만 14세, 지금보다 더 순수했던 마인드에서 나온 음악의 가치가 더 큰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녹음 날짜가 잡혔을 때부터 녹음 밖에 머리에 없었어요. 반년 넘게 하루 온종일 녹음만 생각하고 산 것 같아요. 그래서 6개월 동안은 아예 기억이 없어요.”

그렇게 만14세의 소년 김두민이 꼬박 6개월을 쏟아 부은 결과물 ‘멘델스존 피아노 작품집’이

2년만에 전세계 대중들을 만난다. 이는 2017년 2월 말 누군지도 모르는 이들 앞에서 비공개 오디션을 봤고 한달만에 앨범 제의를 받으면서야 ‘누군지도 모를 이들’이 워너클래식 사장과 부사장임을 알았다.

“처음 제의를 받고는 제 연주를 CD로 남길 수 있다는 사실만 보였어요. 유튜브에 영상 올리는 느낌 정도랄까요. 당시의 제 상상 경험치가 그 정도뿐이었거든요. 앨범을 녹음하고 준비하는 게 어떤 의미고 그 뒤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전혀 몰랐던 거죠.”

이어 “당시엔 스튜디오에서 녹음하는 게 좋았고 피아노도 좋았고 장비도 신기할 따름이었다”며 “작업을 하면서 앨범을 낸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알게 되고 책임감, 부담감이 엄청나게 생겼다”고 털어놓았다.

“하지만 스트레스를 받기 보다는 제가 할 일은 연주 들려주기라고 생각했어요. 공연과 똑같이 생각하기로 마음 먹었죠. 물론 영원히 따라다닐 녹음이라 엄청나게 신경을 쓰기는 했지만 감사한 기회라고 생각하고 제가 할 수 있는 걸 최선을 다 했어요.”

그렇게 그의 데뷔앨범에는 멘델스존의 ‘카프리치오’(Capriccio in F Sharp Minor Op. 5), ‘3개의 환상곡’(3 Fantasies or Caprices Op. 16), ‘2개의 피아노 소품, 작품번호 없는 작품 19’(Piano Pieces WoO 19), ‘6개의 어린이를 위한 소품집’(6 Children’s Pieces Op. 72), ‘론도 카프리치오소’(Rondo Capriccioso in E Op. 14), ‘안단테 콘 바리아치오니’(Andante Con Variazioni Op. 82), ‘환상곡’(Phantasia in F Sharp Minor Op. 28)이 담겼다.

“멘델스존은 애정하면서도 제가 잘 표현할 수 있는 작곡가예요. 딱딱 들어맞는 느낌이에요. 저는 변화가 많은 음악을 추구해요. 멘델스존의 특징 중 하나가 다양한 색채와 캐릭터죠. 어떤 부분은 소프라노와 피아노 반주만 있는 것 같다면 어떤 부분은 오케스트라의 느낌이 나기도 해요. 그런 부분이 저와 닮아 있지 않았나 생각해요.”

그리곤 “멘델스존은 종합음악인이었다. 오르가니스트였고 피아니스트였고 지휘자이기도 했다”며 “그가 가진 음악에 대한 다양한 지식이 피아노 작곡 기법에 녹아들었다. 멘델스존의 다양한 색채와 캐릭터가 음악적 지식과 결합돼 한 곡안에 담겼다”고 설명했다.

“멘델스존 감성을 제대로 표현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지식이 바탕이 돼야한다고 생각하며 노력했어요. 멘델스존은 낭만주의 작곡가지만 작곡기법 등은 고전주의 영향을 많이 받았죠. 이에 고전주의 사고를 기초로 낭만주의의 각론을 쌓는다는 느낌으로 공부했어요. 저에게 멘델스존은 낭만주의 초기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 작곡가여서 고전주의와 낭만주의 둘 다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됐죠.”

그리곤 ‘카프리치오’에 대해 “멘델스존이 14세에 작곡했고 제가 만 14세에 녹음한 곡”이라며 “제 정서를 기반해 멘델스존을 추측하려고 노력했고 그래서 이 곡이 더 잘 표현됐다고 생각한다”고 털어놓았다.

나를 닮은 베토벤·멘델스존과 함께 할 생애 첫 리사이틀

“베토벤은 제가 가장 잘 아는 작곡가예요. 저와 정서가 가장 잘 맞는 데다 표현도, 이해도 가장 잘되는

작곡가죠. 제가 굉장히 좋아해서 곡들을 많이 알고 있거든요. 피아노 뿐 아니라 현악 4중주, 교향곡 등 공부를 많이 해서 공감이가고 베토벤 음악이 어디서부터 비롯된 건지를 알고 있으니까요.”

그리곤 “베토벤 인생과 모든 음악에 포함된 ‘역경을 딛기 일어서다’는 시그니처 같은 문장에 되게 공감 가고 그것을 표현하는 걸 좋아한다”고 털어놓았다.

선천성 백내장으로 왼쪽 눈의 시력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피아노를 연주해야했던 김두민이 겪었을 감정과 음악에 대한 의지들을 고스란히 투영할 수 있기 때문이다.

“왼쪽 시야가 안보이는 건 피아니스트로서 확실히 핸디캡이긴 해요. 연주할 때 제 손의 위치를 봐야하는데 오른쪽 시야에 편향되다 보니 한눈에 들어오질 않거든요. 그래서선지 고개를 왼쪽으로 돌려 앉는 버릇이 생겼어요. 하지만 나름대로 극복할 방법을 강구해 요즘은 심하게 불편을 느끼진 않아요. 주로 왼쪽을 보면서 오른쪽을 감각으로 치는 연습을 했죠. 연습하면서 시야 확보가 안돼 미스가 나는 경우에는 눈을 감고 연주하기도 하고 그래요.”

데뷔 리사이틀 1부에서 김두민은 베토벤의 ‘안단테 페보리’(Andante Favori Andante F major, WoO 57), ‘소나타 1번’(Sonata No. 1 in f Minor, Op.2), ‘소나타 12번’(Sonata No. 12 in A-flat Major, Op. 26)를 연주한다.

“베토벤의 첫 피아노 소나타인 ‘소나타 1번’은 하이든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았으면서도 베토벤만의 특징들이 있어요. ‘소나타 2번’과는 완전히 달라져요. 2번부터는 베토벤 소나타라는 느낌이 확 드는데 1번은 하이든의 후기 소나타인가 싶을 정도로 다르죠. 베토벤이 12, 14, 16세에 작곡한 곡들, 26세에 작곡한 ‘소나타 1번’ 보다 훨씬 초기의 작품들을 많이 알고 있는데 2번 소나타부터는 볼 수 없는, 1번 소나타만 가진 베토벤만의 색이 있죠. 그걸 들려드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소나타 12번’에 대해서는 “3악장에 장송곡이 포함된 굉장히 특이한 소나타”라며 “베토벤의 철학이 깃든 맨 처음 곡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발레곡인 ‘프로메테우스의 창조물’(Die Geschöpfe des Prometheus)도 있지만 피아노 곡 중에서는 가장 처음 베토벤의 철학을 담은 곡이라고 생각해요. 베토벤이 본인을 투영한 ‘소나타 31번’과 조성이 같죠.”

2부에서는 앨범 수록곡인 멘델스존 ‘6개의 어린이를 위한 소품집’ ‘론도 카프리치오소’ ‘환상곡’과 ‘변주곡’(Variations in E-flat Major Op.82)을 선사한다.

김두민은 ‘론도 카프리치오소’를 프로그램으로 선정한 데 대해 “멘델스존의 가장 유명한 곡인데다 ‘카프리치오소’라는 캐릭터는 멘델스존에게 매우 중요한 인물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6개의 어린이를 위한 소품집’은 멘델스존의 순수함이 가장 잘 드러난 작품 중 하나라고 생각해요. 자그만 소품들이지만 어찌 보면 음악성이 농축된, 멘델스존의 특징을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곡들이죠. ‘환상곡’은 굉장히 특이한 곡이에요. ‘환상곡’이라고 하기엔 현실이 잘 잡혀 있어서 ‘소나타’로 이름 붙여도 될 정도예요. 부제인 ‘스코틀랜드풍의 소나타’(Sonate ecossaise)에 잘 맞는 곡이죠. 하지만 ‘환상곡’의 분위기가 또한 잘 잡혀 있어요. 그 특별한 분위기를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그리곤 ‘변주곡’에 대해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곡”이라며 “테마와 변주의 관계가 너무 잘

성립돼 있다. 베토벤의 변주곡을 물려받았다는 느낌을 주는 곡들”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변주나 보여주기가 아닌 캐릭터 변화 등 좀 더 심층적인 연주를 하는 곡이기 때문에 프로그램에 포함했다”고 덧붙였다.

“베토벤을 공부하다보니 멘델스존도 절로 더 많이 알게 됐어요. 독일 낭만주의의 시작은 베토벤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베토벤은 절대 낭만주의자가 아닌 고전주의자였지만 베토벤 정신에서 몇 개를 떼서 발전시킨 게 낭만주의거든요. 쇼팽이든 리스트든 멘델스존이든 브람스든 베토벤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베토벤 과거의 흔적을 따라 만하임 학파, 바로크까지 거슬러 올라가다보니 멘델스존의 새로운 표현도 알게 된 것 같아요.”

나의 스승님, 미카엘 블라드코프스키...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음악!

“음악적으로 추구하는 부분이 닮아 있어요. 정확하게는 음악적으로 추구하는 바 보다는 저도 저런 음악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게 하는 분이세요. 단순한 교수와 학생이 아닌 스승님으로 생각하는, 너무 감사한 분이죠.”

김두민은 예콜 노르말의 미카엘 블라드코프스키에 대해 ‘스승’이라 칭하며 “음악 뿐 아니라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조언을 많이 해주시고 진심으로 아껴주신다”고 덧붙였다.

“의미를 담고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연주를 하고 싶어요. 클래식 음악이니 예전 연주스타일을 알아야 한다고는 생각해요. 하지만 예전 연주의 재현이 아니라 지금의 시대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걸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당시 사람들의 예술혼은 당연히 배워야 하지만 연주기법은 지금 시대 악기에 맞춰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요.”

그리곤 “연주를 재현하려면 당시 악기를 복원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다시 한번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음악이 학문이긴 해요. 하지만 학문만은 아니에요. 음악에서 학문을 너무 생각하는 순간 본질을 잃는다고 생각해요. 결국 음악은 듣고 즐기 위한 거잖아요. 그래서 연주자의 본분은 듣고 즐길 연주를 하는 거죠.”

이렇게 전한 김두민은 스승 미카엘의 말 중 기억에 남는 것으로 “음악을 그냥 흘려보내라”를 꼽았다. 그리곤 “음악을 느끼면서 흘려보낸다는 느낌으로 연주하는 편”이라고 부연했다.

“피아노 소리를 듣기보다는 소리가 뻗어나가는 공간에서 관계된다는 느낌으로 제3자의 입장으로 들으려고 노력해요. 뭔가를 조절해 만들기 보다는 원래 있는 음악을 제 식대로 상상해서 청중들에게 흘려보내듯 연주하죠. 그걸 청중들이 받는다는 느낌으로요.”

글 | 허미선 (브릿지경제 기자) 기사발췌

2019 스타즈 온 스테이지, 두번째 이야기



STARS ★ ON ★ STAGE



YOOJIN JANG JU HEE LIM

장유진 VIOLIN | 임주희 PIANO

스트라빈스키 불새

슈베르트 바이올린과 피아노를 위한 환상곡 C장조 D.934



IN MO YANG TAEGUK MUN BEN KIM

양인모 VIOLIN | 문태국 CELLO | 벤킴 PIANO

글리에르 바이올린과 첼로를 위한 8개의 소품 Op. 39

쇼스타코비치 피아노 3중주 제 2번 e단조 Op. 67



ENSEMBLE DITTO

양상블 디토

리처드 용재 오닐 VIOLA | 다니엘 정 VIOLIN

자니 리 VIOLIN | 문태국 CELLO | 스티븐 린 PIANO

드보르작 피아노 5중주 A장조 Op. 81

2019.10.6 SUN 5 PM |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2019 글로벌고객만족역량 조사
항공여객운송서비스 부문 1위 대한항공



DELHI

전설과 신비의 땅, 인도에 귀 기울이다

대한항공 델리 노선 매일 운항
델리에서 당신만의 인도 이야기를 시작하세요



www.koreanair.com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타지마할
Taj Mahal

피아니스트 김두민 데뷔 리사이틀

CREDIA

이 프로그램은 Club BALCONY 후원회원에게 무료로 제공됩니다.
[단, www.clubbalcony.com에서 공연을 예약한 후원회에 한함]

www.credia.co.kr

CREDIA MUSIC & ARTISTS

CREDIA
INTERNATIONAL

CREDIA
ENTERTAINMENT





CREDIA Music & Artists 에 의해 창작된 프로그램북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 - 비영리 - 변경금지 3.0 Unported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CREDIA Music & Artists 의 저작물에 기초, 이 라이선스의 범위를 넘는 이용허락은
CREDIA Music & Artists 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본 온라인 프로그램북 서비스는 크레디아 페이지(www.credia.co.kr)에서 제공됩니다.

This e-book is exclusively provided by CREDIA Music & Artists

www.credia.co.kr